

대구·경북지회, 제5차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3월 23일 제5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 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3대 회장으로 유니빅 박용일 대표가 추대됐다. 박용일 신임회장은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벤처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벤처산업과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휴먼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수벤처사원시상식과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2004년 제1차 벤처윤리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16일 '2004년 제1차 벤처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일섭 위원장(이화여대 부총장), 박원순 부위원장(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오형근 부위원장(협회 부회장), 조현정 위원(비트컴퓨터 대표), 박헌준 위원(연세대 교수), 한정화 위원(한양대 교수), 이상기 위원(법무법인광장 변호사) 등 위원회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조찬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2004년도 벤처윤리경영확산사업'에 대한 계획과 '제1차 윤리교육' 실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 한해 사업을 '클린벤처클럽' 구축과 함께 교육 및 사례연구 등을 중심으로 펼치기로 하고 세부실행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04년 제2차 윤리위원회는 5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신규회원사 CEO 오찬 모임

협회는 지난 3월 18일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클럽에서 '신규회원사 CEO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2003년 11월부터 2월까지 협회에 가입한 30개 업체 중 아인텍정보 안상훈 대표를 비롯한 18개 업체 CEO들과 협회 임원 및 사업별 팀장들이 참석, 협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각 사업분야별 소개와 신규 회원사간 상호 정보 교류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